

EU 환경 규제 최신 동향

- 자원순환 및 기후에 대한 산업별 규제가 구체화되고 있어 -

EU는 탄소중립, 친환경, 무독성 물질을 기반으로 한 건전한 사회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EU는 그간 추진해 온 핵심원자자법과 공급망실사지침에 대한 최종 승인 및 발효를 앞두고 있으며, 탄소중립산업법은 금년 2월 EU 집행위원회, 이사회 및 의회의 3자간 합의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EU의 입법 및 시행에 따른 기업부담 및 영향을 주시할 필요성이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최근 EU의 환경 규제 최신 동향을 살펴보고, 주요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1. EU 환경 규제 방향

EU는 탄소중립, 친환경, 무독성 물질 기반 사회로의 전환을 대원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EU의 환경 규제 방향은 EU 집행위원회가 2020. 6. 발표한 신순환경제실행계획(New Circular Economy Action Plan), 그리고 마찬가지로 EU집행위원회가 발의한 탄소중립산업법에서 잘 드러납니다. 구체적으로, 신순환경제실행계획은 지속가능한 제품/상품 기본정책, 폐기물발생량 최소화 및 가치 최대화 등의 **폐기물 및 자원순환**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탄소중립산업법은 탄소중립과 관련된 역내 산업 제조 역량을 2030년까지 40% 끌어올리고 대외의존도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2. 폐기물 및 자원순환

2024. 3. 13, EU 의회는 유럽 전역의 섬유 및 음식물 폐기물 방지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고 이를 채택하였습니다. 섬유/패션 산업계에서는 패션제품 제조과정에서 탄소배출, 의류폐기물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있었는데, 이러한 움직임에 따라 개정된 지침에서는 2025년 1월 1일까지 재사용 및 재활용을 위한 섬유 폐기물의 분리수거를 의무화함으로써 재활용가능한 섬유폐기물이 매립되거나 소각되지 않도록 할 것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정안에는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판매가 적용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섬유/패션산업의 주요 지속가능성 이슈에 대하여는 [2023. 2. 화우 뉴스레터 참조](#)

식음료산업에서는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고 이를 재활용하는 것이 지속가능성의 주요 판단기준으로 논의되어 왔습니다. 같은 취지에서, 유럽의회는 2030년까지 구속력 있는 음식물 폐기물 감축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회원 국가들에게 음식물 폐기물 감소 기준을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EU의회는 식품 가공 및 제조 분야에서 2030년까지 최소 20%, 식품 서비스 및 가정 분야에서 40%를 감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 식음료업의 주요 지속가능성 이슈에 대하여는 [2022. 4. 화우 뉴스레터 참조](#)

그 외에도, EU 이사회는 2024. 3. 25. EU나 OECD 회원국에 비해 경제적으로 덜 발달한 OECD 비회원국으로의 폐기물 수출을 규제하기 위한 폐기물 수출입 규정에 동의하고 새로운 규칙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그에 따르면, EU국가에서 비OECD 회원국으로의 폐기물 수출은 엄격하게 제한되거나 감시(모니터링)될 예정입니다. 단, EU 국가들과 OECD 국가들 간의 폐기물 수출입(플라스틱 폐기물 포함)은 규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기후 및 에너지

탄소중립산업법은 EU 역내 기업의 제조역량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으로, 원자력, 태양광, 풍력 등 대상기술에 대한 허가절차 간소화 등 관련 지원을 규정합니다. 이 법안에 따라, EU는 '전략적 탄소 중립 기술'을 별도로 지정해 신속허가절차와 보조금 지급 요건 완화 등의 각종 혜택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EU 의회는 2024. 3. 12.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회원국들이 건물개조를 추진하도록 요구하는 건물에너지성능지침(EPBD)의 도입을 승인하였습니다. 이는 2023년도 이전부터 도입이 논의되던 것으로, 현재 유럽에 존재하는 건물 물 75%가 에너지 비효율 건물에 해당하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건물형태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리노베이션, 신축 건물에 대한 규제 등을 내용으로 합니다.

*건설산업 부문 주요 지속가능성 이슈에 대하여는 [2023. 1. 화우 뉴스레터 참조](#)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2030년을 기준으로 신축되는 건물은 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탄소중립건물로 건축되어야 하고(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에 대하여는 2028년부터 적용) 주거용 건물의 경우 2030년까지 평균 기본 에너지 사용량을 최소 16%이상, 2035년까지 20~22% 이상 감소시키는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건물 내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도 의무화됩니다.

위 법안의 주요 목표는 2030년까지 EU의 평균 탄소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감축하기로 한 Fit for 55의 달성, 러시아산 가스 의존도 완화로, 농업용 건물과 문화유산 건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건축물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4. 시사점

현재까지 드러난 바에 따르면, EU의 환경 규제 최근 동향에서 역외기업의 명시적인 차별요소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다만 EU의 환경규제는 그 내용 또는 적용의 시점이 구성원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 달라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변화 내용을 주시함과 동시에 변경된 정책과 입법안을 살펴보고 각 기업에 대한 영향정도 및 적용시기를 파악하여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화우 ESG센터는 정확하고 효과적인 ESG Total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ESG 고도화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갈수록 강화되고 복잡해지는 ESG 정책 및 규제환경에서 화우ESG센터는 고객의 신뢰있는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ontacts

신승국 T. (+82) 2 6182 8502
 센터장/미국변호사 E. synn@yoonya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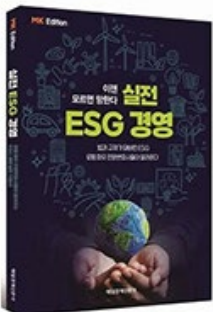
이광욱 T. (+82) 2 6003 7535
 파트너변호사 E. kwlee@yoonyang.com

이근우 T. (+82) 2 6003 7558
 파트너변호사 E. klee@yoonyang.com

조준오 T. (+82) 2 6003 7080
 파트너변호사 E. jojo@yoonyang.com

김연각 T. (+82) 2 6182 8718
 변호사 E. ygkim@yoonyang.com

양희 T. (+82) 2 6003 7674
 시니어매니저 E. hyang@yoonyang.com



화우 ESG센터는 기업이 ESG 규범화 이슈를 대응함에 있어 도움을 드리고자 '실전ESG경영'을 출간하였습니다.

주요 ESG 영역별 규범화 동향, 공급망 실사 규제 지침에 대한 상세한 소개와 산업별 주요 ESG 이슈 등을 담고 있어 기업의 실질적인 안내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도서 정보 바로가기](#)